

2018 자치단체간 문화교류사업 서울시예술단 소개서

서울시국악관현악단 Seoul Metropolitan Traditional Orchestra



서울시국악관현악단

서울시국악관현악단(단장 김철호)은 1965년 국악의 현대화, 대중화, 세계화를 목적으로 창단된 우리나라 최초의 국악관현악단입니다. 인류문화유산의 창조적 계승을 통해 한국 전통예술의 소중한 정신과 가치를 세계와 공유하고 현대인과 공감하며 타 장르의 문화예술과 영감을 주고받으며 언제, 어디서나 함께 호흡하는 열린 예술단으로서의 모색과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혼이 담긴 선율의 현대적인 어울림, 창작 국악관현악의 역사를 잇고 내일의 전통을 만들어가는 서울시국악관현악단으로서 새로운 역사를 창조해 나갈 것입니다.

서울시극단
Seoul Metropolitan Theater



서울시극단

서울시극단(단장 김광보)은 1997년 연극인과 문화계의 기대 속에 창단해 2017년 창단 2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헨리 4세>, <왕위 주장자들>과 같은 고전극부터 <함익>, <육상 발 고추는 왜>와 같은 창작극, 그리고 온 가족이 함께 볼 수 있는 '쉽게 보는 셰익스피어 시리즈'와 같은 가족극을 연간 레퍼토리로 선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연극을 생활 예술로 즐길 수 있는 저변 확대에 기여하고자 기획된 '시민연극교실'과 창작 환경의 개선과 신진 예술가의 발굴을 위한 '창작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무용단
Seoul Metropolitan Dance Theater



서울시무용단

서울시무용단은 1974년 창단해 LA 올림픽 폐막식(1984), 북경 아시안 게임 예술축전(1990)을 비롯해 한-일 국민교류의 해(2002), 한-일 관광교류의 해(2008), 한국-남아공 수교 25주년 기념(2017) 등 국제행사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무용단으로서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문화 속에 뿌리를 둔 서울시무용단은 아시아무대예술제(2006, 2007), 상하이국제아트페스티벌(2011) 등 세계 문화예술 행사에 초빙되어 우리 춤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국제문화 교류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뮤지컬단
Seoul Metropolitan Musical Theater



서울시뮤지컬단

서울시뮤지컬단(단장 한진섭)은 1961년 창단된 국내 최초 뮤지컬 단체로서, 창작극을 발굴하고 무대화함으로써 창작 뮤지컬의 지평을 넓히는 데 기여해 왔으며, 예술성과 작품성을 고루 갖춘 해외 뮤지컬 또한 소개해 왔습니다. 한국 뮤지컬 역사에서 가장 오랜 전통을 지닌 단체로, 설립 초창기부터 재능 있는 배우를 발굴해 뮤지컬 전문배우로 양성함으로써 한국 뮤지컬의 발전을 주도해 왔습니다. 한국뮤지컬대상에서 작품상(1998), 연출상(1998, 1999, 2011), 무대미술상(1998), 안무상(1999), 음악상(2011) 등을, 예그린뮤지컬어워드에서 남우신인상(2017)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서울시오페라단 Seoul Metropolitan Opera



서울시오페라단

서울시오페라단(단장 이경재)은 1985년 조르다노의 오페라 〈안드레아 세니에〉를 첫 공연으로 창단되어 30여 년간 고전 오페라 작품은 물론 독일, 프랑스 작품과 국내 초연 작품 등 다채로운 레퍼토리를 선보이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오페라 단체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2012년부터 창작 오페라의 개발을 위해 작곡가와 극작가가 호흡을 맞추는 '세종 카메라타'를 진행하고 있으며, 2013년부터는 해설이 있는 '오페라 마티네'를 기획해 관객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서울시합창단 Seoul Metropolitan Chorus



서울시합창단

서울시합창단(단장 강기성)은 1978년 창단해 세종문화회관 개관 기념공연인 오페라 〈박쥐〉(빈 오페라단 초청 협연)와 제1회 정기연주회였던 브람스의 '사랑의 노래'를 시작으로 출발했습니다. 깊이 있는 정통 클래식 합창부터 대중을 위한 편안한 합창, 오페라 무대 등 지금까지 149회 정기연주회와 119회 특별연주회 등 다양한 무대를 통해 풍부한 음색과 다양한 레퍼토리를 선보이며 시민의 정서 함양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소년소녀합창단
Seoul Metropolitan Junior Chorus



서울시소년소녀합창단

서울시소년소녀합창단(단장 원학연)은 1964년 '서울시립어린이합창단'으로 창단해 올해로 54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지금까지 166회의 정기연주회를 개최했으며, 한-일 양국 국교 정상화 기념식(2015) 등 국가 기념행사는 물론 다수의 초청 연주, 해외 공연, 오페라 출연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참신한 기획이 돋보이는 〈외할머니 댁에서의 여름방학〉, 〈동시의 재발견〉과 스테디셀러 공연인 〈왕자와 크리스마스〉 등 관객의 호평을 받으며 어린이 합창음악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유스오케스트라단
Seoul Metropolitan Youth Orchestra



서울시유스오케스트라단

서울시유스오케스트라단은 1984년 '서울시립소년소녀교향악단'으로 창단해, 1994년 '서울시청소년교향악단'을 거쳐 2007년 현재의 '서울시유스오케스트라단'으로 이어져 왔습니다. 엄격한 오디션을 통해 선발된 국내 음악대학에 재학 중인 전공자들을 중심으로, 매해 여름 음악캠프 및 마스터클래스를 진행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음악계를 이끌어갈 우수한 오케스트라 인재 양성은 물론, 〈실내악 앙상블〉, 〈썸머 클래식〉과 다양한 공연을 통해 클래식 저변 확대에 힘쓰고 있습니다.

서울시청소년국악단
Seoul Metropolitan Youth Traditional Music Ensemble



서울시청소년국악단

서울시청소년국악단(단장 유경화)은 2005년 창단되어 서울시-몽골 자매결연 10주년 기념공연을 시작으로 국내외 다양한 무대에서 우리 음악의 아름다움과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국악을 전공하는 30세 이하의 젊은 연주자들을 중심으로, 우리의 전통음악을 바탕으로 가장 현대적이면서 세계적인 한국음악의 미래를 만들어간다는 가치를 추구하고 있으며, 창작국악극대상에서 〈꿈꾸는 세종〉으로 최고연주상(2014)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